

벼 품위자동판정기 개발과 수매제도 개선 연구

*윤 홍선, 정 훈, 조 영길, 이 중화
농업기계화연구소, ¹쌍용기계산업사

벼의 제현율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기계장치의 작동과 측정자료의 관리 및 정산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고, 또한 공정하고 정밀하면서 신속하게 제현율을 측정할 수 있는 벼 품위자동판정기를 개발하였다. 또 벼 수매시에 이를 이용하여 제현율을 측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수매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'95, '96년도에 전북 진봉농협에서 제현율별 차등가격 수매 실증시험을 실시하였다.

시작기의 품위판정 소요시간은 시료량을 300g으로 했을때 약 4분이었고, 다반복 품위판정시의 제현율의 편차는 $\pm 0.3\%$ 이내로 나타나 정밀하고 신속한 품위판정이 가능하였다. 또 시작기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진봉농협에서 제현율에 따른 차등가격 수매를 실시하였던 바 농가의 수취 가격이 높아졌으며,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대농민 신뢰 향상, 가공물량 확보의 용이 등 운영 효율의 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벼의 제현율이 67%~83% 까지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, 따라서 벼 수매등급을 1등급(78% 이상), 2등급(74~78%), 3등급(74% 미만)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 등급 내에서 제현율이 높은 벼를 생산한 농가에게 상대적 손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